



밀레니얼 세대의 퇴직연금 전망

이아름 연구원

2050년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을 준비하는 과정의 경우 현재 은퇴자와 미래의 은퇴자는 현저히 다를 것으로 나타남.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소비자 금융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젊은 층은 과거 젊은 층에 비해 자산과 부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자산 축적 수준을 고려하면 밀레니얼 세대가 은퇴할 시점인 2050년까지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은퇴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밀레니얼 세대들은 퇴직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이전 세대보다 높은 대학 진학률, 정년 연장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반면, 단점으로는 비정규직 증가, 자택 매입, 결혼 및 출산 등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의 연기,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의 운용 리스크 증가, 기대수명 연장, 낮은 수익률 등이 있음. 밀레니얼 세대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 지식을 축적시켜야 하며 정부와 보험회사는 이들을 위한 연금 마련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2050년 54세에서 69세가 되는 미국 밀레니얼 세대¹⁾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을 준비하는 과정의 경우 현재 은퇴자와 미래의 은퇴자와는 현저히 다를 것으로 나타남²⁾
-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소비자 금융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젊은 층은 과거 젊은 층에 비해 자산과 부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³⁾
 - 과거 젊은 층의 경우 1995년 당시 만 25~35세(1960~1970년 출생)의 순자산 중간값⁴⁾은 3만 달러를 초과하였고, 2007년 당시 만 25~35세(1972~1982년 출생)의 순자산 중간값은 2만 5,000달러였으나, 이후 세대는 같은 연령대의 순자산이 2만 달러 이하로 지속됨
 - 이는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이 당시 취업하기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의 직장 안정성, 퇴직연금 수준 등이 이전 세대의 직장보다 낮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1)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은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말로, 미국 작가인 윌리엄 스트라우스(William Strauss)와 닐 하우(Neil Howe)가 출간한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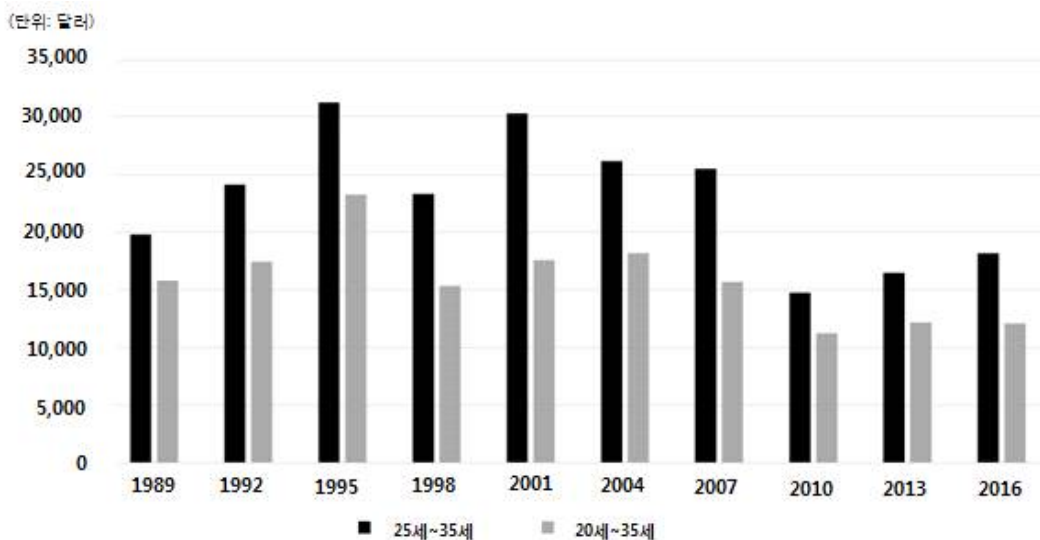
2) Brookings Economic Studies(2019. 3), "How Will Retirement Saving Change by 2050? Prospects for the Millennial Generation"

3)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17), "Survey of Consumer Finances 2016"

4) 전체 수치 중 가운데값

- 2017년 밀레니얼 세대의 평균 부채는 4만 4,000달러로 2004년 기준 같은 나이대인 1969~1979년 출생자의 평균 부채인 약 4만 9,000달러보다 적음
 - 이전 세대들은 주택 마련과 같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부채 비중이 높았음⁵⁾
 - 한편, 밀레니얼 세대의 부채는 대부분 학자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남⁶⁾

〈그림 1〉 젊은 층의 순자산 중간값(1989~2016년)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2017)

■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높은 대학 진학률, 정년 연장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밀레니얼 세대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고액연봉자가 증가하고 정년도 연장됨에 따라 저축할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베이비부머(Baby Boomer)⁷⁾의 46%만이 대학교를 졸업한 반면, 밀레니얼 세대의 60% 이상이 대학을 졸업하였는데, 이는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기 때문임

■ 반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비정규직 증가, 자택 매입, 결혼 및 출산 등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의 연기, 확정기여형

5) 2004년 당시 1969~1979년 출생자 28%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나, 주택 소유 비율이 낮아진 2017년 밀레니얼 세대는 19%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6) 2004년 1969~1979년 출생자의 20%만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반면, 2017년 밀레니얼 세대는 33%가 학자금 대출을 받음. 학자금 대출 규모면에서도 밀레니얼 세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2004년 1969~1979년 출생자의 학자금 대출 중간값은 1만 3,000달러였지만, 2017년 밀레니얼 세대의 학자금 대출 중간값은 1만 8,000달러를 기록함
 7) 1946년에서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임

퇴직연금의 운용 리스크 증가, 기대수명 연장, 낮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 축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감소,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퇴직연금 수령 가능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낮은 평균 소득과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내 집 마련, 결혼⁸⁾, 출산⁹⁾ 등이 미루어지고 있음
- 운용 실적과는 무관하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보장받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 지급이 기금 운용 실적에 따라 개개인의 퇴직연금이 차이가 커짐에 따라 투자 리스크와 책임감이 늘어남
- 기대수명이 연장됨¹⁰⁾에 따라 퇴직 후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필요 자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짐
- 지난 몇 년간은 금리가 소폭 올랐지만, 1990년 중반 이후로 지속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밀레니얼 세대는 퇴직 이후를 위한 자산 축적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밀레니얼 세대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 지식을 축적시켜야 하며 정부와 보험회사는 이들을 위한 연금 마련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kiri**

8) 최근 내 집 마련 비율은 1989년 이후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결혼 연령의 경우 1975년 여자와 남자 각각 21세와 24세이었던 반면 2016년은 각각 27세, 29세인 것으로 나타남

9) 첫 아이 출산 연령의 경우 1975년 22세에서 2014년 26세로 높아짐

10) 지난 50년 동안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의 경우 67세에서 76세로, 여자의 경우 73세에서 81세로 연장됨